



#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 가족지지가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구조방정식 모형구축\*

박 완 주<sup>1)</sup> · 한 지 영<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들이 여러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 간호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하는 교육이다(이정애, 2004). 또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간호전문직의 장래성을 인식하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사회화하면서 대인관계기술과 임상기술을 발전시키고, 문제해결 기술을 적용하면서, 실습에 이론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Edwards, Smith, Courtney, Finlayson, & Chapman, 2004).

임상실습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아야 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어려워하고 실습만족도도 낮은 편이다. 이는 나아가 간호전문직 개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임상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현장에서 의료인의 태도, 환자과 보호자의 태도, 실습환경, 실습상황, 역할갈등, 심리적 요인, 지식, 기술, 사회적 요인, 과제물, 학사일정 등의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례, 이종은, 2005).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순례, 이종은, 2005), 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스트레스 상황의 인지정도를 달리하여 불만과 실패감, 심한 불안과 긴장, 좌절과 우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하나선, 한금선, 최정, 1998)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Keller (1979)의 학습동기 ARCS 이론에서 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거나 유지시켜주는 주의(Attention)와 임상실습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를 자신과 관련시키는 관련성(Relevance) 변수인 자아탄력성은 동기적 변인으로 학습능력이나 학습전략에 중요한 요소이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상황적 요구에 대해 자아통제수준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Klohn,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인지적 기술이나 대인관계기술과 같은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이 높고 내·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적응하게 된다(장휘숙, 2001). 또한 자아탄력성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불확실성에 직면하였을 때 발휘되는 적응력으로, 실습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위축을 벗어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호교육 연구에서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인지되고 있다(박민아, 2009).

교수효율성은 전문적 지식과 능력, 원조자로서의 역할, 인간관계 능력, 효율적 교수법 등을 갖춘 임상실습지도자가 급

**주요어 :**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 교수효율성, 가족지지

\* 이 논문은 2009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2)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hanjy@silla.ac.kr)

투고일: 2011년 5월 23일 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2일

변하는 임상환경 속에서 실습하는 간호대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결과에 영향을 주며, 실습에 임하는 태도, 조직적인 기술, 자신감을 줄 뿐 아니라 임상수행능력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유필숙 등, 2008). 이는 임상실습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자신감(Confidence) 변수이다.

또한 행동결과와 자기내적 통제에서 얻는 임상실습 만족감(Satisfaction)을 결정하게 하는 긍정적 가정환경과 같은 가족지지는 청소년들의 학습동기와 학습능력을 높인다. 즉, 가족지지를 받는 사람은 낮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로 정서적 안정을 지니므로 임상실습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구혜자, 2008).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마다 부분적으로 선택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변수들은 주로 자아개념(김정숙, 정영해, 2006), 성취동기(장종화, 김경희, 2000), 가족지지(구혜자, 2008), 사회적 지지(윤혜정, 1993), 임상실습교수효율성(유필숙 등, 2008), 수간호사의 리더십(강익화, 김혜순, 1994), 힘 북돋우기(한수정, 2000), 간호가치관(양진주, 2000)으로 각각의 개별요인의 영향만을 보거나 특정변수와의 관계 조사연구가 대부분이며, 변인들 간의 통합적 관계의 구조적 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는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가 되어가는 전문직 사회화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간호의 정체성과 학업적응과 학업성취를 이루게 하는 총체적인 인과관계 모형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그 동기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Keller (1979)의 학습동기 ARCS 이론에서 검증된 개념적 범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학습 상황에서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변수와 선행연구에서의 상관관계 계수가 가장 높게 확인된 변수를 선택하였다. 그 변수들의 통합관계를 설정한 후 확인적 예측모형 구축 및 검정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며, 이를 통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제적 중재개발 전략이나 임상실습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 가족지지와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 가족지지와 임상실습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한다.
- 가설적 경로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도 검증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경로모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문헌고찰과 Keller (1979)의 학습동기의 ARCS이론을 토대로 구축하였다.

Keller (1979)의 학습동기 ARCS 이론은 인간의 동기를 결정짓는 네 개의 개념적 범주인 주의(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학업성취와 학업만족을 위한 교수와 학습상황에서 동기를 유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의 체계적인 이론적 틀 속에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서 학습자의 학습의 능동적 반응을 유도하고 호기심과 탐구적, 지각적 주의(Attention) 변수는 자아탄력성으로, 목적 지향적인 전략과 필요성과 동기를 자신과 관련시키는 부합성을 강조하는 내적 대처요인인 관련성(Relevance)변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학습 수행의 필수 조건과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성공의 가능성 여부를 짐작하도록 하고, 임상실습에서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조절감을 증대시키는 외적전략 요인인 자신감(Confidence) 변수는 임상지도의 임상실습교수효율성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수행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돕고 내적동기유발의 원리가 계속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지하게 하거나 긍정적 결과나 인지적 내적평가를 유지하게 하는 만족감(Confidence) 변수에 가족지지를 포함시켜 구성하였다. 즉 동기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은 독립변수로, 스트레스 대처양식, 임상실습교수효율성, 가족지지는 매개변수로, 종속변수인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와 학업적응과의 선행연구에서 동기요인으로 자아탄력성( $r=.58$ ), 성취동기( $r=.46$ ), 자아개념( $r=.24$ ), 자아존중감( $r=.24$ ), 비판적 사고성향( $r=.52$ ) 등의 요인 중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자아탄력성은 동기조절 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심리적 적응을 갖도록 하는 자

아구조를 연결하는 능력으로(Block & Kremen, 1996) 인간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힘을 제공하는 학습의 근원이다. 특히, 자아탄력성의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은 사람 이해하기, 통찰하기, 규율을 아는 것과 같은 인지적 구성요소와 사람들과 잘 지내기, 사회적인 적응, 대인관계에서의 따스함의 행동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Klohn, 1996), 이러한 구성요소는 간호임상실습 적응과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의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 능숙한 자기표현력 등으로 나타나 임상실습의 적응과 만족도, 그리고 학업성취에 주요한 변수로 나타날 수 있음이 밝혀졌으며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교에 대한 흥미가 높고,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박민아, 2009) 나타났다.

학업성취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으로 학생의 리더십유형( $r=.13-.35$ ), 스트레스대처방식( $r=.24$ ), 간호가치관( $r=.13$ ), 자율성( $r=.22$ ), 성역할 정체성의 남성성 지수( $.13$ ), 여성성 지수( $.07$ ) 등이 있는데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스트레스원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적, 외적 요구를 관리하기 위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성공적인 노력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율성과 관련 없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모든 목적적인 시도를 포함하는 것이다(Folkman & Lazarus, 1984). 이는 간호임상실습의 목적인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의 양면 모두를 다룰 수 있는 개인의 내적대처요인 변수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r=.60$ ), 학교생활만족도( $r=-.23$ ), 임상실습 교수효율성( $r=.64$ ) 수간호사의 리더십( $r=.39$ ), 실습기관의 교육환경( $r=-.29$ ), 의료진과의 갈등( $r=-.10$ ), 환자와의 갈등( $r=.54$ ), 학교교육의 연계성( $r=-.18$ ) 등이 있었는데 상관관계가 .60 이상인 높은 변수인 사회적 지지( $r=.60$ )와 임상실습 교수효율성( $r=.64$ )을 선택하였다.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간호학생이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구혜자, 2008), 가족지지는 학습동기와 적응에 주요한 외적 변인(오명희, 장윤옥, 2007)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 및 가족지지는 임상실습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웠다(Fig. 1).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횡단적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가설을 검증하는 모형구축 연구이다.

###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D시, G시, M시, K시, P시에 소재한 7개 간호대학의 임상실습 실습경험이 있는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편의표출 하였다.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으로 설문을 이해하고 응답이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수 선정은 조사연구

의 표본크기 산출식  $n = \frac{z_{\alpha/2}^2 \cdot \sigma^2}{\epsilon^2}$  에 따라 사전조사를

통하여 얻은 표준편차( $\sigma$ )값 0.4515, 표본오차( $\epsilon$ ) 0.05, 유의수준값 .05로 최소한 314명으로 표본수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설문지 회수의 탈락률 15.0%와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탈락률 15.0%를 감안하여 최소한 434명 이상으로 표본수를 산정하였다. 설문지 회수의 탈락률 15.0%와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탈락률 15.0%를 감안하여 충분히 배부된 설문지 450부 중 회수율 90.0%의 405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6개를 제외한 총 39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 연구 도구

#### ●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외부 문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과 상황 재구성 능력,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 능력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이다(Klohn, 1996). Klohn (1996)의 CPI (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에서 CAQ (California Adult Q-set)의 자아탄력성 문항과 .20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48개의 문항을 뽑아 CPI의 다른 하위척도와 관련성이 있는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9개의 문항으로 추려진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현진(1997)이 번역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긍정적 진술 4문항과 부정적 진술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현진(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Folkman과 Lazarus (1984)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기초하여 수정·보완한 박주영(1995)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4문항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크게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2개 변인으로 분류되며 적극적 대처에는 문제중심 6문항과 사회적 지지 추구 6문항, 소극적 대처에는 소망적 사고 6문항과 정서중심 대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영역별로 각각의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처방식의 이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미, 최보영과 조한익(2006)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 적극적 대처의 Cronbach's  $\alpha = .90$ , 소극적 대처의 Cronbach's  $\alpha =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의 Cronbach's  $\alpha = .83$ , 소극적 대처의 Cronbach's  $\alpha = .67$ , 전체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 교수효율성

교수효율성 측정 도구는 Reeve (1994)가 개발한 임상실습 교수효율성 측정도구(Instrument of Measure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s)를 수정 보완한 유필숙 등(200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교수효율성 측정 도구는 5요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요인별 항목은 「전문 지식과 능력」 6문항,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11문항,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6문항, 「격려와 지지」 5문항, 「교수법과 평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Reeve (1994)가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5이었다. 요인별 신뢰도는 전문지식과 능력 .86,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83,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74, 교수법과 평가 .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지식과 능력 .75,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87,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86, 격려와 지지 .86, 교수법과 평가 .88로, 전체 Cronbach's  $\alpha$ 는 .95이었다.

● 가족지지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질문지를 기초로 윤혜정(1993)이 수정 보완한 사회적지지의 수퍼바이저, 동료, 가족의 세 차원별에서 가족지지 차원을 사용하였다. 가족의 지지 설문지는 정서적 지지 7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도구적 지지 6문항의 4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구적 지지를 제외한 19문항만을 사용한 가족지지 지각정도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윤혜

정(1993)의 연구에서 제시된 신뢰도는 정서적 지지가 .93, 평가적 지지가 .93, 정보적 지지가 .93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 .94, 평가적 지지 .90, 정보적 지지 .92로 전체 Cronbach's  $\alpha$ 는 .97이었다.

● 임상실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이숙재(1980)가 개발하고 이점덕(2006)이 수정 보완한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과 실습평가의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경은과 이성은(2002)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값이 Cronbach's  $\alpha$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2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조사는 연구목적과 자료수집과정을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동의와 허락을 얻은 후 2009년 12월 5일부터 2010년 2월 10일까지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에게서 서면동의와 함께 자료수집을 시도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문항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8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수행한 후 이를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감정, 사고, 의견, 가치, 신념 등에 대한 정보를 위해 자기기입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이용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비밀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조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K를 이용하여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 가족지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등 서술적 통계를 산출하였고,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위하여 Amos 18.0.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모형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절대부합지수로  $\chi^2$ , 상대  $\chi^2$ (Relative  $\chi^2$ ,  $\chi^2/df$ ), 표준적합지수(NFI), 증분적합지수(IFI), Turker-Lewis지수(TLI), 비교적합지수(CFI),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및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를 구하였다. 모형의 구조 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년은 3학년이 42.6%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기타가 44.2%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대상자 중 81.0%가 좋다고 답하였으며 18.2%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인관계에서는 좋은 편이 70.2%, 보통이 29.8%였으며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없었다. 간호학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55.0%가 만족하는 것으로 41.2%가 그저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가 각각 3.3%, 55.2%이었으며 불만이다와 매우 불만이다가 각각 35.7%, 5.8%로 나타났다.

###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 임상실습만족도 정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자아탄력성은 5점을 만점으로 평균 3.46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낙관적 태도가 3.69로 가장 높았으며 분노조절이 3.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4점 만점으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는 2.60,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는 2.56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을 만점으로 전체 평균 3.04로 나타났으며 실습환경이 3.16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시간이 2.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수효율성에서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2.87이었으며 영역별로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이 평균 3.34로 가장 높았으며 원조자로서의 유용성이 2.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지지는 5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이 4.07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정서적 지지가 평균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영역은 정보적지지 4.01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을 만점으로 전체 평균 3.04로 나타났으며 실습환경이 3.16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시간이 2.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학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8.03, p<.001$ ).

###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 ● 연구변수들의 상관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

<Table 1> Degree of study variables (N= 399)

Variables	subgroups	Mean	SD
Ego-resilience	Confidence	3.37	0.47
	Efficacy of interrelationship	3.37	0.66
	Optimistic attitude	3.69	0.59
	Anger control	3.09	0.84
	Total	3.46	0.48
Stress coping styles	Problem focused coping	2.55	0.50
	Seeking social support	2.65	0.55
	Total of Active Coping	2.60	0.45
	Wishful thinking	2.89	0.43
	Emotion-focused coping	2.22	0.46
	Total of Passive Coping	2.56	0.36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contents	3.06	0.62
	Practice guidance	3.10	0.53
	Practice circumstance	3.16	0.55
	Practice hours	2.76	0.71
	Practice evaluation	2.93	0.68
	Total	3.04	0.45
Teaching effectiveness of preceptor	Professional knowledge and capability	3.34	0.58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2.90	0.63
	Availability as a supporter	2.65	0.72
	Encourage and support	2.71	0.78
	Teaching method and evaluation	2.75	0.67
	Total	2.87	0.57
Family support	Emotional	4.12	0.77
	Evaluative	4.09	0.74
	Informational	4.01	0.77
	Total	4.07	0.71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스트레스대처방식을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임상실습 교수효율성( $r=.70, p<.001$ ), 가족지지( $r=.24, p<.001$ ), 자아탄력성( $r=.18, p<.001$ )의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중공선성의 검증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70보다 넘지 않았고 허용도(Tolerance)는 0.1이하인 변인이 없었으며 분산 확대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 ● 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 값은 538.3( $p<.001$ )로 검증결과 기각되었으나, TLI .90, CFI .92, RMSEA .07, GFI 0.89, AGFI 0.86으로 나타났다.  $\chi^2$ 검증은 영가설 내용이 너무 엄격하고  $\chi^2$ 값이 모형 오류 뿐 아니라 표

<Table 2> Correlation of study variables

(N=399)

	Ego-resilience r( $\rho$ )	Active coping styles r( $\rho$ )	Passive coping styles r( $\rho$ )	Teaching effectiveness r( $\rho$ )	Family support r( $\rho$ )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r( $\rho$ )
Ego-resilience	1					
Active coping styles	.44 ( $<.001$ )	1				
Passive coping styles	-.10 (.056)	.31 ( $<.001$ )	1			
Teaching effectiveness	.23 ( $<.001$ )	.19 ( $<.001$ )	.04 (.409)	1		
Family support	.27 ( $<.001$ )	.26 ( $<.001$ )	.14 (.006)	.17 (.001)	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8 ( $<.001$ )	.09 (.088)	.01 (.846)	.70 ( $<.001$ )	.24 ( $<.001$ )	1

<Table 3> Goodness for fit tests

Goodness	$\chi^2$ (p)	df	Relative $\chi^2$	NFI	IFI
	538.3(.000)	182	2.96	.89	.92
	TLI	CFI	RMSEA	GFI	AGFI
	.90	.92	.07	0.89	0.86

<Table 4>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modified path model

(N=399)

		Direct effect( $\rho$ )	Indirect effect( $\rho$ )	Total effect( $\rho$ )	SMC
Active stress coping style	Ego-resilience	0.607 <sup>***</sup>	0.000	0.607 <sup>***</sup>	0.19
	Teaching effectiveness of preceptor	0.000	0.157 <sup>***</sup>	0.157 <sup>***</sup>	0.06
Family support	Active stress coping style	0.258 <sup>***</sup>	0.000	0.258 <sup>***</sup>	
	Ego-resilience	0.333 <sup>***</sup>	0.000	0.333 <sup>***</sup>	0.1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Passive stress coping style	0.139 <sup>***</sup>	0.000	0.139 <sup>***</sup>	
	Ego-resilience	0.000	0.106 <sup>**</sup>	0.106 <sup>**</sup>	0.51
	Active stress coping style	-0.128 <sup>*</sup>	0.207 <sup>***</sup>	0.078 <sup>***</sup>	
	Passive stress coping style	0.000	0.025 <sup>**</sup>	0.025 <sup>**</sup>	
	Teaching effectiveness of preceptor	0.802 <sup>***</sup>	0.000	0.802 <sup>***</sup>	
	Family support	0.177 <sup>***</sup>	0.000	0.177 <sup>***</sup>	

\*  $p<.05$ , \*\*  $p<.01$ , \*\*\*  $p<.001$ ,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본크기의 영향도 반영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MaCallum, Brownie, & Sugawara, 1996). 본 연구에서의 표본크기는 399 명으로 큰데 이럴 경우  $\chi^2$ 검정은 모형이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제1종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LI, CFI, RMSEA, GFI, AGFI로 값을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절대부합지수인 근사원소평균제곱잔차(RMSEA)가 0.05에서 0.08사이의 기준에서 0.07로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를 보였다(김계수, 2004). TLI (Tucker-Lewis

Index)와 CFI (Comparative Fit Index) 값은 높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이며 대략 0.9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 연구에서 TLI가 .90 그리고 CFI .92로 나타났다. 표본부합지수인 NFI (Normed Fit Index) .90이상일 때 권장되는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80이상이면 적절하다고 보는 데 본연구의 NFI는 .89로 나타났다. 기초적합지수인 GFI (Goodness of Fit Index)가 0.89, 조정적합지수인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가 0.86으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모형의 모수추정치

각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직접적인 효과(.6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9.4%이다. 임상실습교수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16)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26)으로 6.2%의 설명력을 보였다. 자아탄력성은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간접적인 효과(.1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28)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33)과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14)이며 두 요인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0.1%이다. 각 변인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변인은 실습교수효율성(.80), 가족지지(.18)이었고,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탄력성(.11),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03)이었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직접적인 효과(-.13)는 부정적이었으나 간접적인 효과(.21)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효과는 .08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50.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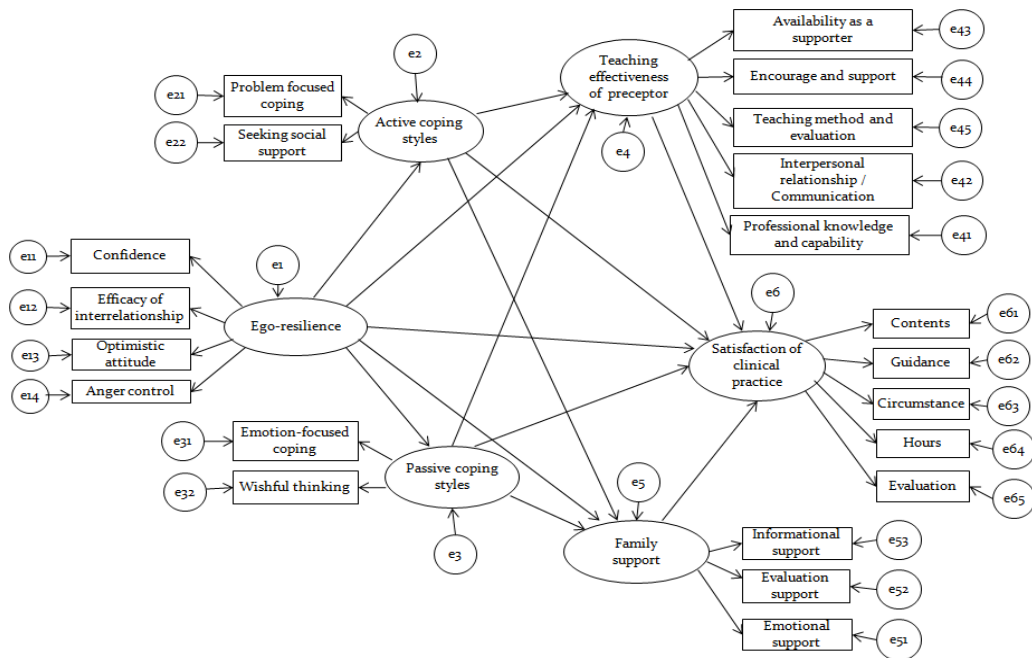
● 최종모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각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화 경로추정치의 값을 중심으로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경로모형(path diagram)을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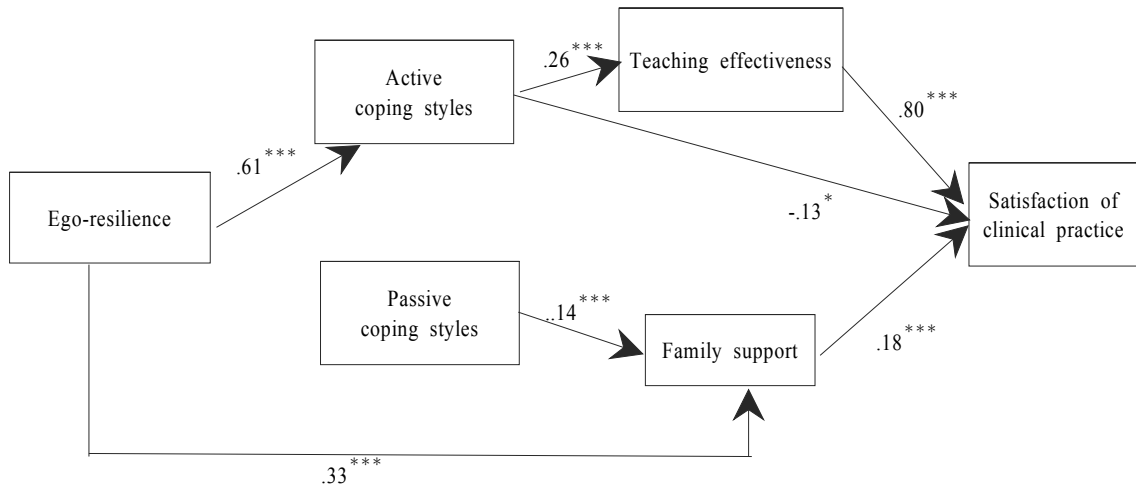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 가족지지 변수가 문헌고찰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4개 변수 모두 임상실습만족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속변수인 임상실습만족도는 독립변수인 자아탄력성, 그리고 매개변수인 내·외적 관련변인과 관련이 있음이 명확히 규명되어졌으며, 모든 관계가 선형적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3.46이었다.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대해 연구한 박민아(2009)의 결과, 평균 3.48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인 대처방식의 평균은 2.60(.45), 소극적 대처방식의 평균은 2.56(.36)으로 서로 유의한 큰 차이는 없었으며, 소망적 사고 2.89(.46)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지추구 2.65(.55), 문제중심 대처 2.55(.50), 감정중심 대처 2.22(.43)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현숙, 배영주와 정선영(2002)의 소망적 사고,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중심 대처, 감정중심 대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순례와 이종은(2005)의 연구에서 사회적



<Figure 1> Hypothetical path model



<Figure 2> AMOS analysis result of research model

지거나 문제중심 대처인 적극적 대처가 높은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실습만족도는 3.04로 구혜자(2008)의 3.01, 박경은과 이성은(2002)의 2.86보다 높으며 이점덕(2006)의 3.29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박현주와 장인순(2010)의 연구와 차이가 있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김은하와 오윤희(200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마다 다양한 실습환경과 실습체제 및 교육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임상실습환경이었고(3.16) 그 다음으로 실습지도, 실습내용, 실습평가, 그리고 가장 낮은 하위영역인 실습시간(2.76) 순이었다. 이는 구혜자(2008)의 연구결과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으로 실습환경에 대한 것으로 3.11점,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으로 실습시간에 대한 것으로 2.79와 비슷한 결과이다. 실습시간 내에 반복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로 인해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거나 실습 중 식사시간의 부족 등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또한 연구대상 학교 모두 간호평가원 기준에 맞춰 실습을 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실습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실습시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제한된 임상실습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방법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실습계획이 수립되어야겠다(이우숙, 조갑출, 양선희, 노영숙, 이규영, 2009).

교수효율성 정도는 평균 2.87로 유필숙 등(2008)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이 측정한 교수효율성 3.19보다 낮았다. 하위영역으로는 최공옥, 조현숙과 김정엽(2001)의 연구에서 전문지식과 능력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원조자로서의 유용성은 가

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였다. 유필숙 등(2008)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이 가장 높게 평가한 교수효율성은 전문지식과 능력이 3.50, 가장 낮게 평가한 영역은 교수법과 평가 3.12였다. 간호학생의 가족지지는 최대평점의 5점에서 4.0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높은 가족지지를 받음으로써 간호 대학생은 긍정적 전문직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 사료된다.

인과관계의 분석결과에서 자아탄력성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직접적인 큰 효과(.6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정서중심사고, 소망적 사고인 소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박재석, 류설영, 장은진과 김정범(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자아탄력성은 동기를 결정하여 인간의 행동방향을 결정짓는 궁극적인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학업적응 개념이 된다(박민아, 2009).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적응의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변화되고 습득하는 역동적 과정(Luthar, Cicchetti, 2000)으로 학습이나 교육에서 전략적으로 증진되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학업적응강화 프로그램에 자아탄력성이 적용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으로 나타난 박민아(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적극적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긍정적 적응 자원인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도록 조력하는 것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자아탄력성은 교수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스트레스대처방식이 직접적으로 교수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자아탄력성과 소극적 스트레스대처방식이었다. 임상실습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원인 중 한 가지는 가정에서부터 발달된 자아개념이 부정적일 경우로(구혜자, 2008),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지를 높여 긍정적 사고와 태도를 지니게 하여 결국 청소년들의 학습동기와 학습능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수효율성(.80), 가족지지(.18) 이었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적극적 대처방식(.21), 자아탄력성(.11), 소극적 대처방식(.03) 이었다. 적극적 스트레스대처방식은 임상실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직접적 경로로서의 영향이 아니라 중간매개변수로서 임상실습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교수효율성과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가족지지가 직접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체 51%의 높은 설명력 값을 가진다. 가족지지는 임상실습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만족감에 직접적 효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극적 대처를 하는 간호학생인 경우 가족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소극적 대처를 하는 경우의 학생을 위해서는 가족지지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주로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소망적 사고나 사회적 지지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결과(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와 같이 좀 더 문제해결중심의 적극적 대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교수효율성이 임상실습만족도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순이었다. 이는 외적관련변인인 교수효율성과 가족지지도가 내적관련요인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대처방식은 임상실습교수효율성에, 소극적 대처방식은 가족지지에 직접적 영향을 보여 간호대학생의 대처방식에 따른 지지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전략이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동기적 성향이 강하면 학습몰입과 임상실습에 대한 적극적 대처태도를 올림으로써 지지자원을 활용하여 실습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 대처할 수 있었고, 임상실습교수효율성이 직접적으로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동기적 성향이 약한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학생인 경우 가족지지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동기요인과 내적 관련요인의 증진전략이 중요하

로 저학년에서부터 자아탄력성 강화프로그램이나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중재가 간호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의 학습동기와 관련된 Keller (1979)의 ARCS 이론모형과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가장 높은 상관변수들로 나타난 연구변수들만을 선택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의 총체적인 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내외적요인인 변인들과 각 대학이나 실습지마다의 상황과 학생과 실습지도교수와의 역동적 인간관계, 학생의 학습유형 등 여러 요인을 모두 다룰 수 없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성에 제한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양한 대상에게 추가적인 관련변수들을 발굴하고 포함시켜 모형을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분석연구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전반적 적합지수에 잘 부합되는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외적관련변인인 교수효율성과 가족지지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직접적 효과를 주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50.9%이었다. 본 연구에서 변인관계에 대한 구조적 탐색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과 본 연구결과가 앞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 교육과정의 지침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매개하는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및 사회적 변수들을 탐색하는 추후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계획 시 동기변인이나 내·외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중재로 변화될 수 있는 임상실습만족도 프로그램에 본연구의 관련변인들을 포함시켜 수행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익화, 김혜순 (1994). 간호학생이 지각한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 6(2), 144-155.
- 구혜자 (2008). 간호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205-215.
- 김순례, 이종은 (2005).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2), 98-106.
- 김은하, 오윤희 (2000).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 186-198.
- 박경은, 이성은 (2002). 간호학생의 성취동기와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상관성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0(2), 83-96.
- 박민아 (2009).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대구.
- 박재석, 류설영, 장은진, 김정범 (2002). 의과대학생의 불안 및 자아강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생물치료 정신의학회지*, 8(1), 150-157.
- 박주영 (1995). *A·B 성격유형·자아정체감·스트레스 대처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4), 621-631.
- 박현주, 장인순 (2010). 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14-23.
- 박현진 (1997).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서미, 최보영, 조한익 (2006).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2), 271-288.
- 오명희, 장윤옥 (2007).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 학습동기의 차이.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19(4), 57-74.
- 유필숙, 김은실, 김혜경, 이성희, 형희경, 엄애용, 김희선 (2008).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 인지정도. *간호행정학회지*, 14(3), 311-320.
- 양진주 (2000).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 가치관과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 276-286.
-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이숙자 (1980).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0(2), 41-52.
- 이점덕 (2006). *프리셉터 지도를 받은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광주.
- 이우숙, 조갑출, 양선희, 노영숙, 이규영 (2009). 시뮬레이션 연계 문제중심학습이 간호학생의 간호기본역량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6(1), 64-72.
- 장종화, 김경희 (2000). 성취동기와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간호논문집*, 4(1), 175-193.
- 장휘숙 (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127.
- 최공옥, 조현숙, 김정엽 (2001). 간호학생 임상실습교육에서 실습지도자 활용(preceptorship)의 교수효율성. *가천길대학 논문집*, 29, 51-58.
- 하나선, 한금선, 최정 (1998).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 유형, 스트레스 반응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8(2), 358-368.
- 한수정 (2000).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힘 복돋우기 (empowerment)와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32-146.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Edwards, H., Smith, S., Courtney, M., Finlayson, K., & Chapman, H. (2004). The impact of clinical placement location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and preparedness for practice. *Nurse Education Today*, 24(4), 248-255.
- Folkman, S., & Lazarus, R.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Keller, J. M. (1979). Motivation and Instructional Design: A theoretical perspectives. *Journal of Instructional development*, 2(4), 26-34.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Luthar, S. S., & Cicchetti, D.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857 - 885.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I, 130-149.  
Reeve, M. M. (199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of

measure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1), 15-20.

##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Teaching, Effectiveness, and Family Support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by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Park, Wan-Ju<sup>1)</sup> · Han, Ji-Young<sup>2)</sup>

1)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 Full 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Silla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the relationship among ego-resilience, and teaching effectiveness on clinical education, stress coping style,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Methods:** The subjects were 399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7 universities and participating in 10 clinical practice setting areas in 5 citie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December 5th, 2009 to February 20th, 2010.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perform the analysis with the statistics program of SPSS win 17.0 and AMOS 5.0. **Results:** Teaching effectiveness and family support showed a direct effect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while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showed an indirect effect. The biggest total effect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was teaching effectiveness followed by family support,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respectively, which accounted for 50.9%. **Conclusion:** Based on outcomes of this study, the proposed model allows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is result implies that strategies or intervention programs enhancing extrinsic protection factors, motivation factors, and intrinsic protection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a structural support system for increas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should also be considered.

**Key words :** Ego-resilience, Stress coping, Teaching effectiveness, Family suppor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200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an, Ji-Young  
Department of Nursing Silla University  
San 1-1 Gwaebop-dong Sasang-gu Busan South Korea, 617-736  
Tel: 82-51-999-5872 Fax: 82-51-999-5176 E-mail: hanjy@silla.ac.kr